

200자 안내

오늘의 정치 내일의 정치

박재창 지음

아시아의회발전연구소 소장이며 숙명여대 교수인 저자가 지난 2년여간 MBC '라디오 칼럼'에 출연해 우리의 정치현실이 안고 있는 과제와 한계를 지적하고 점검했던 내용을 모아 엮은 책.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낙동강 페놀사건을 비롯해,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사건 등을 통해 우리 정치의 부패상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제시한다.

고려원/A5신/276면/4300원

情婦

블라디미르 마보코프 지음 / 김기태 옮김

러시아 출신 미국작가로 이미 대표작 「로리타」로 국내독자들과도 친숙한 소설가의 애정 소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남자 알비누스는 어느날 마르코이란 어린 소녀를 만나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교통사고를 당해 실명한 알비누스는 정부를 향해 권총을 겨누지만, 결국 자신의 총에 맞아 죽게 된다.

태학당/A5신/242면/4300원

나를 알고 너를 알자

메드 세리프 지음 / 고진숙 옮김

성공학신서 두번째권인 이 책은 경영전문가의 경영실무자들을 위한 조언을 담고 있다. 개론서라기보다는 실무지침서로 읽히는데, 효율적인 시간 안배법을 비롯해,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 정확하고 빠른 정보처리법, 건강관리술, 대화를 원만하게 이끄는 법,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법,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만한 책.

정암문화사/A5신/260면/3800원

복된 사람들

장인산 지음

이 책은 4세기 그리스도교의 주요인물인 성암브로시오 주교가 마태오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의 산상설교 중 머리말인 '진복팔단'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것. 실천적인 사목자로 유명한 암브로시오 교부는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랄 수 있는 진복팔단을 하느님께 오르는 계단으로 보고, 각 단계에서 갖춰야 할 신앙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교부학 박사학위 논문을 쉽게 풀어 쓴 글.

성서와함께/A5신/228면/3800원

나는 한국인이야

신세용 지음

미국유학생인 17세 소년의 자서전적 이야기. 환상에 빠져 도미한 저자는, 사관학교 등을 다니며 외로움과 인종차별의 설움을 느끼게 된다. 담배와 마약, 대마초, 동성연애에 젖은 미국의 젊은이들 속에서 동양의 한 이방인이 느낀 여러가지 어려움을 솔직한 어투로 적고 있는데, 입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기유학 붐이 일고 있는 요즘, 이 책은 섣부른 유학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여지없이 증명한다.

장원/A5신/212면/4000원

처음 쓴 느낌표

김신 지음

「대학별곡」, 「졸병시대」 등의 작품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독차지해온 소설가의 신작장편소설. 결혼가정에서 자라온 외로운 아이 일구는 고교에 진학해, 친구 동현을 만나고, 이어 여학생 여주를 사귀게 된다. 친구들과 함께 새롭고 낯선 경험들을 하게된 일구는 성인이 되어 바닷가에서 여주를 다시 대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애뜻하고 아련한 추억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작가의 또다른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들꽃세상/A5신/262면/4500원

애련

경요 지음 / 이원규 옮김

최근 서점가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대만 여류작가의 대중적인 연애소설. 소꿉친구로 자라 자연스럽게 결혼한 커신과 지아원. 그러나 커신은 독특한 매력을 지닌 남편의 친구 지위안을 본 순간 그만 무너지고 만다. 아내 커신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당한 지아원은 좌절감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지위안은 친구와 사랑의 줄다리기에 지쳐 광산으로 떠나버리는 데...

명경/A5신/328면/4500원

아하, 그렇군요 (1~3)

편집부 엮음

부제 '온가족이 함께 읽는 재미있는 잡학상식'이 가리키듯, 일상에서 언제나 부딪히는 갖가지 의문을 재미있게 풀어쓴 책. 1권 「인체의 신비」 2권 「생명과 우주의 신비」 3권 「자연의

신비」로 나뉜 이 시리즈는, 흔히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들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건강한 변은 왜 황금색일까' '탄산가스를 탄 목욕물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등의 의문을 이 책은 말끔히 씻어준다.

ICI/A5신/240면 내외/각 3800원

여름에 얼어죽은 이유

휘틀리 스트리버 지음 / 소영미 옮김

오랜동안 야생늑대의 생태를 연구하며 쓴 이색적인 소설. 핵전쟁으로 다가온 멸망의 현장을 죄없이 죽어가는 늑대의 시선을 통해 그리고 있는데, 핵폭발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모녀와 평화를 사랑하는 '어둠의 늑대'가 추위와 기아, 그리고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게 줄거리. 동물의 시각으로 인간이 저지른 과오를 질타하게 하는 독특한 구성과 함께 핵으로 인한 인류의 파멸을 우려한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는 작품.

영림카디널/A5신/176면/3800원

무정

이광수 지음

1917년 1월1일부터 총 162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이 소설은 춘원의 대표작으로 탄생 1백주년을 맞아 「매일신보」에 연재된 것과 광익서관에서 나온 초판본을 참고해 새로 펴낸 책. 현재의 맞춤법에 방언과 독특한 어휘는 그대로 살려 편집한 이 책은, 춘원연구자들을 위해 연재횟수를 본문중에 숫자로 표기한 것이 특징. 단국대 윤희로교수의 논문 「무정의 전통성과 근대성」이 권말부록.

우신사/A5신/398면/5000원

추리공트

임철우 외 지음

이창동·이승우·박상우·하창수 등 젊은 작가 22인의 추리공트만을 한데 모은 기획소설집. 비록 짧은 매수의 작품이지만, 추리작가가 아닌 순수문학계열의 작가들이 쓴 것이어서 더욱 흥미롭게 읽히는 이 소설집은, 여러 작가의 작품을 모아 놓고 있어 다양한 소재와 구성 등을 접하는 즐거움도 준다.

책나무/A5신/272면/4300원

몽골문어문법

니콜라스 뽀뽀 지음 / 유원수 옮김

러시아 태생의 학자로 현재 미국에서 발간되는 「중앙아시아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저자의 연구서. 이 책은, 우리가 몽골어를 비롯한 알타이어와 계통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무관한 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떤 의견이 옳은가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갖는 데 적합한

개별 문법서. 몽골문자의 기원 등을 설명한 서론과 음성학, 문자, 파생, 곡용과 활용, 통사론으로 구성돼 있다.

민음사/A5신/356면/8000원

기쁜 우리 젊은 날

배창호 지음

홍행의 귀재로 지목받는 영화감독이 자신의 영화관과 삶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은 책. 자신의 첫사랑과 연출노트 등 개인사에 관한 고백과 함께 영화촬영현장에서 벌어진 헤프닝 등을 담백한 필치로 그리고 있는데,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의 글을 통해 그의 영화관도 엿볼 수 있다. 단작 작가 최인호씨는 서문에서 그를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 놈이면 하느님도 감동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우석/A5신/246면/4000원

소피의 선택 (1·2)

윌리엄 스타이론 지음 / 박봉희 옮김

문학성과 대중성을 공유하는 미국작가의 대표작으로 영화로도 제작돼 호평을 받았던 작품. 친구 버지니아와 함께 해병대를 거쳐 브룩클린에 정착한 주인공 스틱고는 소설가 지망생으로 소피와 네이산을 만난다. 그가 만난 소피는 나찌의 아우슈비츠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비운의 여인이며, 네이산은 유대인이라는 굴레속에서 광기를 지닌채 살아가는 인물. 전쟁이 인류에 남긴 광기와 폭력, 무질서를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극적으로 형상화한다.

성훈출판사/A5신/각 392면/각 5000원

애꾸눈 수도승

폴 렉스 지음 / 김석주 옮김

이 책은 일본과 인도에서 비교종교학과 禪을 연구한 저자가 중국·일본·인도의 선문집을 근거로 저술한 책 「Zen Flesh, Zen Bones」 가운데 일부분을 발췌해 옮긴 것. '선이란 무엇인가' '중국과 일본과 인도의 선' '붓다 이전의 선'으로 구성된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붓다에 의해 발원된 선이 중국의 선으로 자리잡는 과정 등 선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다. 逸話を 접하는 재미도 있지만, 동양정신의 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선의 실체를 대하는 경험도 선사한다.

형상사/A5신/270면/4200원

계간지

문학과 사회 (92년 가을)

[특집] 역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현대의 역사학과 역사학의 현대성(조한욱) ▲역사 서술과 문학적 상상력(임상우) ▲한국사 서술

책과 가을, 그리고 유혹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들 하지요.
책 읽는 계절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서늘한 날씨, 떨어져 행인의 발길을 움켜잡는 낙엽,
더욱 진하게 풍겨오는 커피내음,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색에 젖게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만 되면
책 속으로 훌쩍 빠집니다.
그렇게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은,
이상이 높아진 만큼의 웃음을 온통
흐뭇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웃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유혹하세요.
훗날 높아진 이상의 키를 서로 견주면서
같이 웃으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바른글방>과 <미필적고의>에는
책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책을 만듭니다.

▶<바른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출판기획상담 • 단행본 · 잡지 등 기획출판 대행 • 운문 · 교열 · 교정 대행 • 본문편집
- 단행본 · 아동물 · 참고서 등 전산조판 입 · 출력

▶<바른글방>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 완전편집 가능한 KCE 편집입력기 SUPER WRITER 15대 • 300LP 1대
- ECRM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빌딩 3층
전화 325-5366 (대)
325-5363 ~ 5
325-6484 ~ 5
팩시 325-5362

다·자·인·전·문·집·단
미필적고의



2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이제 5명의 디자이너가
11개월째 표지 · 책의
얼굴만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별앞에서 계십니까?

'The way We were' -
追憶은 우리들이 머물렀던 과거의 시간입니다.
잠시 슬픔을 잊고 주위를 둘러 보세요.
당신을 향한 색깔있는 눈길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방법론의 반성과 전망(권연웅)
[오늘의 한국문학] ▲문학공간 : 1992년 가을
(편집동인) ▲정현종의 시적 실존과 시의 운
명(김주연) ▲부서진 육체와 사랑의 공간(신
범순)
[비평, 논문] ▲고통에의 기억과 창조에의 고통
(김병익) ▲포스트모더니즘과 장엄함의 미학
(최문규)
[테마 서평] 마르크스시즘, 탈변증법 탈해체,
민중통일(장석만)
[시] 천양희/이하석/최두석/박세현/양진건
[소설] ▲완전한 영혼(정찬) ▲그대 다시 여
의도를 보지 못하리(이순원)
[영화대본] 시작(김정환)
문학과학지성사/A5신/364면/5000원

창작과 비평 (92년 가을)

[특집] 변화하는 정세, 통일운동의 전망 ▲세
계사적 전환과 통일운동의 접합(강정구) ▲분
단과 통일(서중석) ▲'남북합의서' 이후의 통
일 전망(오귀환) ▲통일운동론의 몇가지 쟁점
에 대하여(고세현) ▲'PKO 후'의 일본에서
'통일'을 생각한다(小田 實)
[평론] ▲광의의 리얼리즘문학론(구중서) ▲
사실적 문학과 시적 문학(김성호) ▲잘 팔리
는 번역소설의 상업성과 '문학성'(설준규)
[논단] ▲'NIFs 현상'과 한국자본주의(정장
연) ▲동구권 몰락 이후의 사회주의 1(R. 블
랙번)
[시론] '한 · 흑갈등'과 '인종'에 대하여(전
규찬)
[서평] ▲고은의 시, 허수경의 노래(이시영)
▲반성과 모색을 통한 새로운 소설의 길(권성
우) ▲빌붙는 종살이 말 글에서 벗어나자(정
재도) ▲한국사 개설서의 시대구분과 시대성
격 문제(강만길) ▲역사연구와 역사가의 삶
(김인중) ▲삶의 길, 역사의 길(이옥연)
[소설] ▲쇠와 살(현기영) ▲안개 너머 청진
항2(유시춘) ▲狂人日記(류양선) 목숨(공선옥)
창작과비평사/A5신/436면/5000원

세계의 문학 (92년 가을)

[권두논문] 가망없는 희망(유종호)
[특집] ▲사유하는 인간의 등장과 권력의 탄
생(남경희) ▲매스 미디어와 권력(김승현) ▲
동양철학에서 본 권력(이효걸) ▲권력의 형성,
역사정신분석학적 탐색(신승철) ▲권력의 역
설, 그 문학적 지평(우찬제)
[미셀 푸코와의 대담] 권력, 자아, 윤리(황정
미)
[계간 비평] ▲미궁에서 헤어나기(정효구) ▲
소설 내적 세계와 소설 외적 세계의 소통(김경
수)
[서평] ▲글자 싸움에서 말의 싸움으로(김수
업)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계보고서(양길

현) ▲철학사의 알파벳과 플롯(김상환)
[시] 박재삼/김영태/윤희명/김광규/김기택/
이학성/이승욱/김재석/강연호/조병준/이원
[장편소설] 경마장의 오리나무(하일지)
민음사/A5신/490면/7000원

현대시세계 (92년 가을)

[기획평론] ▲문학의 위기 담론들에 대한 해
체적 읽기; 다시 문학이란 무엇인가(장석주)
▲시인과 작가의 길, 빛나는 개성주의를 위하
여(반경환)
[시인연구] ▲시인과의 대담(김경미) ▲시인
론(이광호) ▲정호승대표시선 11편 연보 및
연구자료
[신작시] 나해철/김영승/최계선/송찬호/권
대웅/김재덕/이원백/윤대현
[제3회 신인공모 당선자발표] 김태형/이준후
/강정
[특별기고] 한 중진 비평가의 행복과 진실(유
중호)
[시집서평] ▲존재의 고향을 찾아서(이혜원)
▲저녁 산책길, 그리고 시집들(이문재) ▲집
에 관한 몇몇 생각들(김진수)
청하/A5신/288면/4000원

학술지

耽羅文化 (제12호)

[논문] ▲耽羅居人 李邦翼의 「漂海歌」에 대한
研究(成武慶) ▲濟州道民謠의 傳承變異에 관
한 考察(左惠景) ▲濟州民謠 시집살이 연구
(梁永子) ▲濟州道の 生水說話와 물법신앙
(문무병) ▲島 · 山의 민속: 제주도의 신화
(秋葉降) ▲濟州道の 蛇鬼(秋葉降) ▲濟州道
의 佛跡(강장언) ▲朝鮮朝 濟州道 教育施設
(梁鎭建) ▲觀光商品 購買動機에 관한 實態分
析: 濟州地域을 中心으로(姜寶植)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김혜연) ▲濟州
道開發에 있어서의 住民의 參與와 役割 一考
(김정희)
[자료] 漂海歌/耽羅別曲/李光洙의 濟州道實
紀 序文/崔南善의 濟州道實紀 序
제주대담라문화연구소/A5신/286면/비매품

